

지역 매아리

부안군, 9일부터 8일간

상반기 군민만족도 조사 실시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19년 농업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평가는 전국 142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평가 기준은 7개 항목, 16개 지표로 농기계임대실적과 수요자 농업인 만족도, 전담인력 현황, 발 농업 기계화 추진, 정책참여와 개선 노력 등이다.

시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2억원(국비 1억)을 확보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소가 그간 농업인들에게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실이다.

관련해 시는 권역별로 농기계임대사업소 본소와 북부사업소, 서남권사업소 총 3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임대사업소는 토요일 근무와 농기계 운반대행서비스,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시는 동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는 동부권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경영비 절감과 함께 노동력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19년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간담회 실시

(사)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김종열 지회장)에서는 6일과 7일 양일간 부안 컨벤션웨딩홀에서 노인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 참여자 4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실시했다.

노인재능나눔 활동은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65세 이상의 노인 450명이 노인의 경륜과 재능을 활용해 노인안전예방, 상담안내 등의 활동을 통해 경로당 등 노인안전시설의 점검과 성화봉, 성폭력 예방, 뾰파당 및 보이스피싱 예방 등 노인들의 안전 및 권익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김종열 지회장은 인사말로 "비싼 농사철과 폭염에도 재능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무사히 활동을 마치심에 감사드리며, 노인재능나눔활동지원사업이 어르신들에게 사회활동기회 및 일자리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태풍대비 안전조치 만전

부안군,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대비 상황판단회의 사전점검 등 행정력 총 동원, 피해 예방 최선

6일 부안군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북상함에 따라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점검과 안전조치 방안을 위한 태풍대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산업건설국장(이재원)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 기상정보를 토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태풍 이동경로와 부안군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여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여부를 협의하였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6일 오후 6시 부안 남남동쪽 약 120km부근 해상에 진입해 7일 오후 6시 속초 북북동쪽 약 100km부근 해상으로 이동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만반의 대비를 위해 부안군재난안전대책본부

는 6일 13시부터 태풍해제시까지 재난안전상황실과 관·과·소, 읍·면 직원 1명씩 상황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편 안전총괄과 임경천과장은 태풍 이동경로, 영향범위 등을 주시하며 태풍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인명피해, 산사태, 급경사지 등 재해취약지역을 전수조사하고 태풍에 대비해 새만금 가력항 등 항포구와 하천변, 산사태 피해예상구간, 도로시설물 등 재해취약지역의 침수·붕괴 대비 태세를 갖춰 안전관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또한 우리지역에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역에 발작업 중 최초 폭염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부안군은 폭염경보 발령일 3일부터 살수차를 이용해 주요 시가지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도우미, 지역자율방재단등과 협업을 취약계층, 영농작업 현장에 예방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재원 산업건설국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각종행사 및 독거노인 방문 등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활동에 직원들의 고생이 많은 가운데 이번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 이 다행히 부산을 경유하여 속초로 빠져나가 소멸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행태로 생각하며, 이후 다가오는 제9호 태풍 '레기마'의 진로를 주시하여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라며 인명피해, 농작물, 취약시설 등 각종 태풍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복)국순당고창명주가 자사 대표제품인 '명작(용량375ml)' 북분자주를 미국 시장 뉴욕에 8톤을 수출한다.

국순당고창명주 '명작', 미국 뉴욕에 8톤 수출

고창 북분자주가 미국 최대 주류시장인 뉴욕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권이 두루 선호하는 프리미엄 과실주'이라는 마케팅 전략이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수출길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6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농)국순당고창명주(대표 김영동)가 자사 대표제품인 '명작(용량375ml)' 북분자주를 미국 뉴욕으로 수출하기 위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을 시작했다.

이번 뉴욕 수출물량은 북분자주 8톤, 수출액은 6400만원에 달한다. 그간 한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LA등지에서 호응으로 뉴욕 등 미 동부지역에 간간히 수출이 이뤄졌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물량은 처음이다.

업체는 올해 뉴욕지역 누적 수출액

이 1억원을 넘겨 사상 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명작' 북분자주는 고창군 심원면 일대 황토지역에서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알이 굵고 육질이 좋으며 단맛이 강한 2·3차 수확 분으로 빚어져 단맛과 신맛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국순당고창명주 김영동

대표는 "북분자주의 국내 유통을 선도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북분자주를 만든다는 일념으로 적극적으로 수출 시장을 개척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출기념 행사에 참석한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대표 특산물 북분자주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대표 과실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인기'

청정호수인 옥정호 물 이용 바다슬라이드와 워터 드럼 유아풀장 등 다양한 시설 완비

8월 들어 한낮 최고기온이 36도를 넘나들고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이 아이들과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태산 선비문화 중심지인 칠보면 무성리 일대에 자리한 칠보물테마유원지는 지난달 13일부터 본격 개장에 무더위를 피하려는 부모와 자녀들로 연일 들쭉이고 있다.

매년 여름이면 5만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단골 피서지다.

특히 올해는 물놀이장 주변 안전시설과 바다슬라이드를 보수하고, 생태공원에 국화를 식재하는 등 물놀이장을 새롭게 단장해 관광객들의 반응이 뜨겁다.

칠보물테마유원지는 2층 규모의 물테마 전시관을 비롯해 어린이풀장과 유아 풀장으로 구성돼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이 찾기에 안성맞춤이다.

바다슬라이드와 워터드럼·터



정읍 칠보물테마유원지 물놀이장 8월 18일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널·스프레이 바다분수대 등 워터파크 못지않은 각종 놀이시설이 물놀이 하는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준다.

또 샤워장과 물품보관소, 수유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도 두루 갖추고 있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힐링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물놀이장은 무성서원과 태산선비문화사료관 등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청정호수인 옥정호 물을 이용해 깨끗한 수질로 유명하다.

물놀이장은 안전관리를 위해 물놀이 시간 50분 후 휴식 시간 10

분을 운영하고 충분한 수상 안전요원과 응급처치사를 상시 배치해 어린이와 유아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찾고 있다"며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점검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놀이장은 8월 18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은 휴장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2019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받아...이달 30일까지

정읍시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19 정읍시민의 장'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시는 정읍의 명예를 대내·외에 알리고 남다른 열정과 노력으로 시정발전에 헌신·봉사한 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정읍시민의 장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고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선발해 시상함으로써 그간의 노고를 알리고 정읍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함이다.

시상 분야는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명예시민의 장으로 총 8개 부문이고 심사를 통해 오는 '정읍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추천 대상은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이다. 단, 애향장과 명예시민의 장은 주소 요건에서 제외된다.

추천 자격은 시 단위 각 기관장과 해당 분야의 사회단체장, 읍·면·동장, 학교장, 기업체 대표, 향우회장과 과소장이다. 시청 총무과와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자들에게 철저한 현지 사실조사와 정읍시민의 장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부문별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오는 9일부터 8일간 상반기 군민만족도 조사 실시

부안군은 2019년 상반기 군민만족도 조사를 오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부안군 정책에 대한 만족도 환류를 통해 현재 행정서비스 수준을 확인하고 정책수립의 합리적인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되며, 전북행정평가연구원에 위탁해 실시할 예정이다. 19세 이상 군민 500명 이상을 대상

으로 직접 ARS 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귀농정책, 교육복지 등 정책 만족도와 대중교통, 문화체육, 상하수도, 도로정비 등 생활환경만족도로 나눠 진행된다.

향후 군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민의 만족, 불만족 요인을 파악하고 시급히 개선할 사항을 분석한 후 문제점을 보완·개선할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들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함병2ea/12%, 북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부안 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